

보도시점 2026. 8. 31.(월) 14:00 배포 2026. 8. 31.(월) 0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하는 진안군 현장 방문

- 진안군 지역 주민(귀촌 3년 차 다자녀 가족)에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전달
- 면(面) 가맹점 행사장터 순회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일 계산원’ 참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31일(월) 오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장을 살피며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에서 일일 계산원 역할에 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였다.

진안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중 하나로 8월 31일 지역 주민 2만 2천여 명에게 월 15만 원(7월분 소급하여 30만 원)의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하게 되었다. 송 장관은 이날 그간 진안군의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 중 다자녀 가족*에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지역의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 농촌 유학 3년 차 귀촌 가족(부, 모, 초등학생 3자녀)

이어서, 진안군 10개 면에 소재한 가맹점 15개소가 기본소득 첫 지급에 맞춰 행사장에 설치한 판매 부스를 둘러보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대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농촌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지역으로 기본소득과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연계하여 생활밀착형 소비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인근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입구에 기본소득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급된 기본소득으로 주민이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일 계산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송 장관은 구매를 마친 주민들과 기본소득 사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건의 사항 등을 꼼꼼히 메모하며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을 지키면서 현장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4년 9월 개업하여 350여 농가가 지역에서 생산한 품목 위주로 판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고, 인구가 얼마나 유입됐다가 아니라,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고 주민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한 10개 지역을 모두 방문하여 기본소득이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었다.”라며, “오늘 진안군에서 지급된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중 (044-201-2811)
		담당자	사무관	박건우 (044-201-2817)

